

“화폭 속에 어우러진 땀과 열정”

여덟 번째 포천미협 정기회원전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지부장 황행일)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여덟 번째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한해동안 미술활동을 통해 노력한 회원들의 기량을 선보이며, 회원의 결속 및 미술활동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기회원전은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한국예총 포천지부가 후원했으며, 100여명의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개막 행사를 치렀다.

서예 김진동, 양주승, 엄연희, 장동원, 정영희, 한영수, 형용철 ▶문인화 유수중, 이병찬 ▶디자인 이관식, 지영란 등이다.

한편 황행일 지부장은 “금년은 포천현대미술제, 산자수명 미술심리대회, 제59회 경기도미술협회회원초대전 등으로 미술협회의 위상 및 정체성이 확립된 한해였다”며 “회원들의 좋은 작품과 작품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는 1997년 (사)한국미술협회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설치된 후 현재 황행일 지부장과 최운섭·양주승 부지부장 등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원전을 통해 포천미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12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개최된 제8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개막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를 절단하고 있다.

2007년, 포천 아트밸리 새롭게 태어난다

폐쇄석장 국제적인 관광·휴양명소로 개발 추진

수려한 경관 속에 방치돼 원상복구가 어려운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산39-1번지 일대의 폐쇄석장이 2007년 6월 ‘포천 아트밸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포천시는 내년 1월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 5월에는 조각작품 배치 및 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12월 공사 준공을 거쳐 2007년 6월에 전시관 및 조각공원을 개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포천 아트밸리 조성사업(Postart-V)에는 도비 100억 원과 시비 79억 원 등 모두 1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3만여 평 규모가 될 ‘포천 아트밸리’에는 조각공원과 전시홍보관(1천413㎡), 공연장 2동, 피크닉장, 이벤트광장, 전망휴게실 등이 들어선다.

포천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유명조각가를 초빙해 국제적

인 조각공원과 전시관, 야외공연장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 청계천 광고 복원용 석재로 사용될 만큼, 뛰어난 재질을 갖추고 있는 ‘포천석’이 대형 예술조각 작품으로 승화되는 만큼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훼손의 현상인 폐쇄석장을 ‘환경치유’의 개념으로 접근해, 자연과 상생하고 인공과 자연의 만남을 극대화하는 콘셉트로 세계 유일의 예술세계를 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천 아트밸리가 조성되면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포천시가 더욱 부상하는 것은 물론,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마흔문학회 문학의 밤 개최

마흔문학회(회장 손진홍)가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를 시화, 책, 낭송회를 통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마흔문학회는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

제1회 마흔문학회 시화전 ▶마흔16집 출판기념회 ▶마흔문학회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마흔문학회 시화전은 사진, 그림, 컴퓨터

그래픽, 종이공예, 서예 등과 어우러진 회원들의 작품 50여점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마흔16집 출판기념회는 1989년 1집을 시작으로 IMF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차례 결간된 후 지속적으로 발간된 ‘마흔’의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어 개최되는 마흔문학회 시 낭송회는 20여명의 초청인사 및 회원들이 시를 낭송하며, 문학의 밤을 더욱 의미있는 자리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15

역사의 라이벌 최명길과 김상헌의 관계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년(선조3) ~ 1652년(효종3)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정묘호란의 난국에서 주화론과 적화론으로 극명하게 대립했던 지천 최명길(淵川 崔鳴吉)과 청음 김상헌, 그들은 17세기 최대의 라이벌이었다.

모두 서인 계열로 처음엔 비슷한 길을 걸었다.

광해군 말기 최명길은 현실문제에 적극적인 양명학(陽明學)에 빠졌고 김상헌은 명분과 의리를 숭상하는 주자학(朱子學)에 몰두하면서 서서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최명길은 죽음앞에서도 당당한 김상헌의 의견함에 탄복했고, 김상헌도 최명길의 주화론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얼마후 최명길도 청나라 복속계획을 꾸민다 해서 역시 불합치는 신세가 됐다. 역사의 라이벌, 그들은 차가운 이역땅에서 포로의 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명길은 죽음앞에서도 당당한 김상헌의 의견함에 탄복했고, 김상헌도 최명길의 주화론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정묘호란을 겪고 나니 최명길은 절망적으로 갈라놓게 된다. 최명길은 주화론, 김상헌은 적화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절해도고도약도 같았던 남한 산성에서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만들어 청군 진영을 오갈 무렵, 김상헌은 그 항복문서를 빼앗아 찢어버렸고 최명길은 그것을 주어서 다시 불었다.

최명길은 갖은 모략과 위협속에서도 전쟁 종식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김상헌은 대의명분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신념으로 임금앞에 엎드려 6일동안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내 놓았다. 당시 최명길은 예조판서, 김상헌은 이조판서였다. 지리한 전쟁이 끝나고 안동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최명길은 서울로 돌아와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최명길은 전후 처리를 위해 청나라에 드나들었고 김상헌은 척

에 잡혀갔다. 그러나 얼마후 최명길도 청나라 복속계획을 꾸민다 해서 역시 불합치는 신세가 됐다. 역사의 라이벌, 그들은 차가운 이역땅에서 포로의 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명길은 죽음앞에서도 당당한 김상헌의 의견함에 탄복했고, 김상헌도 최명길의 주화론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정묘호란을 겪고 나니 최명길은 절망적으로 갈라놓게 된다. 최명길은 주화론, 김상헌은 적화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절해도고도약도 같았던 남한 산성에서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만들어 청군 진영을 오갈 무렵, 김상헌은 그 항복문서를 빼앗아 찢어버렸고 최명길은 그것을 주어서 다시 불었다.

최명길은 갖은 모략과 위협속에서도 전쟁 종식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김상헌은 대의명분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신념으로 임금앞에 엎드려 6일동안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내 놓았다. 당시 최명길은 예조판서, 김상헌은 이조판서였다. 지리한 전쟁이 끝나고 안동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최명길은 서울로 돌아와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 이들은 귀국후 모두 재상이 되어 조국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각기 명암이 달라졌다. 최명길의 후손들은 소론이 되어 정치적 힘을 상실한 채 강화도에서 양명학파를 형성, 외로운 길을 갔다. 반면 김상헌의 후손은 노론이 되어 세력을 잡고 훗날 안동김씨의 권세까지 누렸으니 이는 조선이 달리 보다는 명분을 중시한 사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상헌의 형 상용(尙容 禹의정)은 병자호란때 왕자 비변을 강화도에서 호위하다가 강화가 함락되자 순절하였고 상헌의 손자 수항(壽恒), 수증(壽增) 증손 창집(昌集)은 영의정으로서의 (義)를 지켜며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를 시기하는 반대 당(소론)의 김일경 목호흥의 모함으로 삼대가 참화를 당하는 비극도 겪었다.

그러나 정의는 승리하는 것, 그 후 모함이 밝혀져 신인 되었다. 적선지기에 필유유경이라 하였다. 신하로서 최고의 영예인 종묘묘정(宗廟廟正) 공신이 나서 한 일묘사충(一廟四忠)이 탄생하였는데 조선조 500년 통틀어 유일한 한 사람이다. 즉 국가에서 수항 창집 세계 성형 4대의 충절을 현창하여 명부도(命不昧)의 은전을 내린 것이다. 한사람의 불천위(不遷位)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거늘 청음 가문에는 직계로 4대가 불천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선조 말 안동김씨 70년 세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조들의 후광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문·화·칼·럼

퓨전(fusion)문화

장현곤 솔모루문학회 회장

오늘날 우리는 퓨전(fus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새 우리는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퓨전이 란은 문화현상에 익숙해져 있다. 퓨전 스타일의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변화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퓨전음악, 퓨전가수, 퓨전영상, 퓨전음식, 퓨전기구, 퓨전광고 등은 물론 퓨전 정치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퓨전의 어원은 라틴어의 fuso(섞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영 어식으로 명사화되어 'fusion(퓨전)'이란 말이 생겨난 것으로서, 두개 이상의 것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의 의미이다.

나름대로 다른 각도로 풀이하면 무한한 도전과 실험정신, 새로운 물질, 새로운 상품의 마인드를 의미하기도 하며, 새로운 문화의 고갈에서 비롯되는 사람들의 욕구불만에 의해 탄생한 21세기의 유행어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퓨전은 언제 어디서나 있어 왔다.

누구도 고립되어 살 수 없기에 어차피 다른 것과 섞여 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말에도, 심지어 단일민족을 부르짖는 우리의 핏줄에도 이방의 것이 섞여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섞임, 즉 퓨전은 간음과 타락, 불순, 잡종족속의 본질적 속성으로 비하되어 왔다. 순수를 동경하고 장려하는 반면에, 섞임을 마치 바이러스의 침투 마냥 배척하고 두려워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섞임은 곧 변화를 자아내고 그 변화의 끝이 무엇인지 몰라 늘 두려웠고 차라리 변화를 거부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보수적 성향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퓨전의 유리성을 인식하여 이질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결합,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다.

중국에서 건너온 청자기술에

상감기법이라는 우리의 독창적 기술을 접목하여 중국의 청자와는 다른 더욱 뛰어난 고고한 품격을 지닌 고려청자를 만들어 내었다.

또한 14세기 무렵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다가 총명함과 아름다움 자재로 황후의 자리에 오른 기황후와 권문세가의 귀부인이 된 고려의 여인들은 고려의 의상과 음식에 대륙의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고려의 퓨전의상과 음식을 크게 유행시켰다.

조선시대에도 중국의 화포 원천기술을 우리 고유의 화포기술에 절묘하게 조합하여 '천자총통' 등 성능이 우수한 독창적 화포기구를 만들었으며, 거북선과 더불어 이 화포기구에 인하여 일본의 조종으로 위기에 빠졌던 일진왜란을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지금의 어떤가? 우리의 IT 인재들은 선조들의 독창성에 발맞추어 대표되는 미국의 '창의성'과 한 가지의 기술을 대를 이어 발전시키는 일본

의 '정인정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우리만의 창조적이면서도 독특한 IT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최첨단 메모리에 로직과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퓨전 반도체'와 디지털 기기에도 접목한 '퓨전 디지털 컨버전스'도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IT) 뿐 아니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의 영역에도 발 빠르게 퓨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있어서 '퓨전(fusion)'은 모든 분야에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불경기의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는 '퓨전'의 이로운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선조들의 창조적 응용능력을 기반으로 한 청, 음, 경, 예, 술, 의, 화, 과학,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퓨전화하여 세계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내 임금께서 내리신 구슬을 불경하게도 불한당에게 빼앗기고 임금님께 곤장을 맞고 죽을 몸이 되었으니 남은 여성 서로 의종계 서로 도우며 살지이다. 그리고 내 쪽으면 저 무수당을 때려 부수고 그 곳에 묻도록 하려라”

그러나 근면 성실하고 효도하는 열세남매를 문 백남수 님을 하늘은 버릴 리가 없었다. 마침 춘삼월 셋째 아들이 집에 있는데 셋째 며느리가 구슬을 집시에 담아 들고 아버지 백남수 님께 드리려는게 아닌가? 아버지가 드리려고 잉어 한 마리를 사서 요리를 하는데 배속에서 구슬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무릎을 쳤다. “혹거니... 하늘이 내리신 '무수당'의 행복한 주인이로고...” 포천의 여러 독자들도 아들 딸 많이 낳아 '무수당'을 짓고 백남수 님 같이 사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소흘읍 이만기 휘호대회 金賞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제3회 휘호대회 개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지회장 이동태)는 지난 11일 지회 대강당에서 '제3회 휘호대회'를 개최했다. 지회인구의 보급과 노인들의 자기전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내빈 및 관계 각지의 노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박은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한 1부 기념식과 2부 휘호대회로 진행됐다.

이날 휘호대회는 ▶금상 이만기(소흘읍) ▶은상 윤영규(소흘읍) ▶장려상 채희영(군내면) · 김병국

(일동면)씨가 입상했으며, 입상자에겐 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각 1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이동태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관내 서예인구의 재번화대와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좋은 글씨 예술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심사는 장동원 정원시예원장장과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이 맡았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p>초대 漢詩</p> <p>寸陰是競務成功(촌음시경무성공) 촌음을 닦아 힘쓰면 성공하고</p> <p>置酒招邀來貴客(지주초요래귀객) 귀객을 부리와 주연을 베풀니</p> <p>文章敦篤如韓愈(문장돈독여한유) 문장이 돈독함은 한유같고</p> <p>燈火可親詩郎讀(등불가끼어려 시를 낭독하고)</p> <p>정정합니다 본지 322호 초대인사 追慕漢陰李先生 天年賢達내 내용 중, 護國忠貞局秀(호국충정국수)→護國忠貞才局秀(호국충정재국수), 愛族精神千古監(애족정신천고감)→愛族精神千古監(애족정신천고감)로 정정합니다.</p>	<p>燈火可親之節 功隆公崇躬 (등화가친지절) (공룡공승躬)</p> <p>文筆奇才歷百年(학순독관위천봉) 배움을 더하면 높은 벼슬에 오른다</p> <p>開門握手主人公(개문취수주인공) 주인이 문을 열고 악수를 해네</p> <p>財物融通顯石崇(재물통융현석승) 재물이 융통되어 승되길 바라네</p> <p>人生品格德修躬(인생품격덕수躬) 덕을 닦아야 인생의 품격이 높아진다.</p> <p>정경 양기성 용원서원 원장</p>
-------------------------------------------------------------------------------------------------------------------------------------------------------------------------------------------------------------------------------------------------------------------------------------------------------------------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9)

‘무수당(無愁堂)’과 열세남매

옛날 내 고향 포천 땅에 백남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백남수는 특이하게도 열두 형제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도 자라서 모두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

열두 남매는 부모와 힘을 합쳐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가족을 길러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두 혼인을 시켜 일가를 이루어 주고 딸도 튼튼하고 부지런한 사위를 얻어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1월은 큰아들, 2월은 둘째아들... 이런 순서대로 딸이 바뀔 때마다 차례를 정하여 자식들 집에서 살았는데 딸네 집은

윤달에만 가서 살았다고 하는데 열세 남매가 힘을 합쳐 이룩한 재산을 똑같이 열세 등분하여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니 걱정 근심이 없는지라 없을 '무(無)', 근심 '수(愁)'자를 써서 '무수당(無愁堂)' 즉, 걱정 근심이 없는 집이란 정각(淸閣)을 짓고 친구 노인들을 모아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이곳을 지나다가 '무수당'을 보고 또 그 사연을 듣고 한양 땅으로 가서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다.

“그래? 어디 시험해 보자. 정말 근심 걱정이 없이 살 팔자인가?” 그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백남수 님을 불러 자초지절을 듣고는 상품으로 구슬 한 개를 주었다. 그런데 임금께 상으로 받은 구슬을 가지고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만 불한당에게 구슬을 빼앗기고 그 구슬은 강물에 던져지고 말았다.(모두 임금님이 시킨 연극이었다.)

정말 근심 걱정이 없던 백남수 님에게 큰 걱정이 생겼다. 임금님은 몇 날 뒤 백남수 님을 불러 구슬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고는 “이래도 네가 근심 걱정이 없이 무수당에서 살 팔자인데!” 하며 따질 판국이었다.

그래서 백남수 님은 열세 남매를 모두 불러 놓고는 유언을 하

초대 詩

복관대첩비
(유명 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

깊은 울음이 있다. 툭툭마져 짓밟혔던 피에 젖은 분노가 묻힌 땅에 당당히 서 있었지만 되풀이 되는 역사에 울었다.

깊은 떨림이 있다. 말발굽 소리 조종소리 창칼이 부딪혔고 비명이 산골을 덮었던 시절부터 의로운 죽음을 보듬고 있었다.

깊은 침묵이 있다. 야스쿠니 구석에서 원수들의 혼령에 떨시 당하고 있어버린 조국에 절망했다.

원수의 神廟에서 숨죽이며 흘린 눈물에 젖어있다.

깊고 깊은 응시가 있다. 삼백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한 국일(克日) 육십년이 넘었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 장렬했던 피 흘림에 답하지 못하는 후손을 지긋이 내려보며 굳게 입 다물고 있다.

깊고 깊은 꾸밈음이 있다. 백년 만에 고향으로 가지만 결코 밟지 않아 차마 밟길 때지 못하고 나에게 대답을 기다리는 깊은 울림의 울음이 있다.

박창업
호원제일의원 원장
솔모루문학회 회원